

AI 문학번역, 어디까지 가능한가—챗GPT가 번역한 한국 문학작품 제목의 기능 분석을 중심으로

마승혜(동국대학교-서울)

1. 서론

문학작품에서 제목은 해당 작품의 내용 및 주제를 대표하고, 다른 책과 구별되도록 해주는 “얼굴”이자 저자와 독자의 소통이 시작되는 “출발점”이 된다(김순영과 이선영, 2015, p. 24). 제목에서 시작된 독자와 저자 간 소통이 독자의 책 구매와 독서행위로 이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제목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고, 제목을 번역할 때는 원천 텍스트와 목표 텍스트 간 언어뿐만 아니라 문화적 간극 또한 고려해야 하므로 제목 번역은 본문 번역 못지않게 까다로운 작업이고 번역가의 창의성이 요구된다(p. 24).

최근 챗GPT와 같은 생성형 AI의 발전에 힘입어 문학번역에서 챗GPT를 활용하는 방식이나 챗GPT의 문학번역 수행 능력을 평가하는 연구가 다수 진행되었다(신천과 조혜진, 2024; 이구용, 2023; 이창수, 2024; Kolb, 2023; Rothwell et al., 2023; Way et al., 2023). 챗GPT를 이용하여 문학번역을 수행한 선행연구(이창수, 2024) 결과를 살펴보면, 챗GPT 문학번역과 인간 번역을 비교할 때 문체 면에서는 통계적으로 구분되지 않았고,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챗GPT가 인간 번역가처럼 번역 과정에 창의적으로 개입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챗GPT를 활용하여 문학번역을 수행하는 경우, 입력하는 프롬프

트에 따라 번역 결과물이 달라질 수도 있고, 챗GPT의 문학 데이터 학습 정도에 따라 동일한 프롬프트를 입력하더라도 번역 결과물은 달라진다. 그러므로 챗GPT의 문학번역 수행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여러 시기에 다양한 프롬프트를 입력해 보며 다각도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이창수, 2024, p. 32).

이러한 선행연구의 연장선상에서 본 연구는 챗GPT를 활용하여 문학번역 수행 능력을 점검하는데, 책 제목 번역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고자 한다. 본문 번역 시에는 번역가가 원문에서 크게 벗어날 경우 오역이라는 비판이 쇄도하지만, 제목 번역은 원작 제목과 달라지더라도 이를 목표 독자에게 어필하기 위한 하나의 전략으로 간주하고 허용하므로 제목 번역은 번역가의 창의성이 두드러질 수 있는 영역이다.¹⁾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챗GPT를 비롯한 AI 문학번역 현황은 어떠한지 선행연구를 통해 살펴보고, 문학번역 중에서도 제목 번역의 특성과 기능을 조사한 후, 이를 바탕으로 챗GPT를 활용하여 다시쓰기 제목 번역을 수행해 본다. 그리고 인간 번역가의 번역 제목과 비교해 볼 때 챗GPT 번역 결과물이 제목으로서의 기능을 적절히 수행하고 있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2. 선행연구 조사

2.1 시를 활용한 문학번역

헤밍웨이 단편 소설을 AI 번역을 활용하지 않고 인간 번역가가 번역한 결과물과 DeepL 번역기를 사용하여 초벌 번역한 후 문학 번역가가 이를 포스트 에디팅한 결과물을 비교·평가한 Kolb(2023)의 연구를 살펴보면, DeepL 포스트 에디팅 결과물에서는 번역가가 자신만의 해석을 바탕으로 한 단어와 표현 사용이 상대적으로 적다. 즉 문학 번역가로서의 정체성이 잘 드러

1) 문학 텍스트 번역 시 “잠재적 창의성(creativity potential)”을 지닌 부분은 원문 텍스트 구조에서 많이 벗어날 수 있는 부분을 말한다(Macken et al., 2022, p. 2).

나지 않고, 동일한 원작을 놓고 여러 명의 문학 번역가가 포스트 에디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물들은 균일한(homogeneous) 경향을 보인다. 이렇게 AI 번역 포스트 에디팅을 통해 문학번역을 수행하다 보면 중국에는 문학번역 언어가 빈약해지는 결과(impooverishment)가 초래될 수 있음을 지적한다(Kolb, 2023, p. 65). 이는 곧 문학번역 시 사용되는 언어의 다양성 및 창의성이 축소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문학 텍스트 번역 시 창의성을 정량적으로 측정된 Guerberof-Arenas와 Toral(2022)의 연구를 살펴보면, 문학 데이터를 학습한 기계번역 결과물을 전문 번역가가 포스트 에디팅한 번역보다 기계번역의 도움 없이 수행한 인간 번역이 창의성 측면에서 더 높은 점수를 받았다. 더 나아가 문학 데이터를 학습한 기계번역 결과물이라 해도 이 결과물을 기반으로 포스트 에디팅할 경우, 이는 인간 창의성에 제약을 가하는 요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왜냐하면 기계번역 결과물을 포스트 에디팅할 때 번역가는 “창조자(creator)”가 아니라 “평가자(evaluator)”가 되기 때문에 창의성을 발휘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문학 텍스트를 대상으로 인간 번역, DeepL 번역 포스트 에디팅, DeepL 번역 결과물 다시쓰기(revision)를 비교한 연구를 살펴보면, 포스트 에디팅을 수행하는 번역가는 기계번역 결과물과 원천 언어라는 양 언어 사이에서 영향을 받기 때문에 기계번역 포스트 에디팅은 ‘양 언어 과정(bilingual process)’에 해당하고, 두 언어의 제약을 받기 때문에 번역가가 창의성을 발휘하기는 어렵다. 반면, 기계번역 결과물 다시쓰기 과정은 단일어 내에서 일어나는 ‘단일 언어 과정(monolingual process)’이고, 다시쓰기 결과물을 살펴보면 인간 번역과 유사성을 보인다. 다시쓰기 결과물에서는 문학번역 시 보편적으로 발생한다는 명시화(explicitation), 단순화(simplification), 어휘 다양성(lexical variety)을 볼 수 있고 원문에서 벗어나 창의적으로 문장을 구성한 것을 볼 수 있다(Macken et al., 2022, p. 9). 이 연구에서도 문학번역에서 AI 번역을 활용하여 포스트 에디팅하면 번역가의 창의성이 제한된다는 것을 언급한다.

인간과 파파고 기계번역, 그리고 챗GPT의 문학번역 결과물을 비교 평가한 이창수(2024)의 연구를 살펴보면, 생성형 AI인 챗GPT 번역이 제한적이기

는 하지만 창의적 개입을 하기도 하며 인간 번역과 기계번역의 중간쯤 위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챗GPT를 사용할 때는 챗GPT가 번역 과정에 창의적으로 개입하여 원문과 다른 번역문을 만들어내도록 적절한 프롬프트를 입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제목 번역의 경우 원제목과 아예 다르게 다시 쓰는 경우가 많으므로 원제목을 고수하는 방식의 기계번역은 적절하지 않고, 생성형 AI를 활용하여 원제목에서 벗어나는 창의적 과정을 프롬프트에 제시하는 작업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제목을 번역할 때 무엇을, 어떻게 프롬프트를 입력하여 원제목에서 벗어나 창의적 결과물을 도출할 수 있을지 생각해 봐야 하므로 먼저 제목의 특성과 기능, 그리고 제목 번역 전략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2.2 제목의 기능 및 제목 번역 전략

제목 번역 시에는 원천 문화 및 독자와는 다른 목표 문화권의 독자, 언어, 시장 등을 고려하여 가장 적절한 제목을 선택해야 한다. 제목 번역은 목표 문화권에서 수행하는 기능이 특히 중요하므로 번역 과정 중 원제목과 의미적으로 관련성이 없는 제목을 번역 제목으로 선택하기도 한다. 그래서 제목 번역을 ‘창작’ 및 ‘다시쓰기’라고 본다(Viezzi, 2013, 김순영과 이선영, 2015, p. 26에서 인용됨).

제목이 어떤 기능을 수행하는지 살펴보면, 우선 다른 작품의 내용이나 제목과 구별해주는 ‘차별적 기능’이 있고, 제목이 어떤 장르의 책 제목인지 알 수 있게 해주는 ‘메타텍스트적 기능’, 독자의 흥미를 자극하고 독자와 소통을 시도하는 ‘친교적 기능’, 본문 텍스트 내용을 함축적으로 전달하거나 보여주는 ‘지시적 기능’, 텍스트에 대한 저자의 감정을 드러내는 ‘표현적 기능’, 독자의 감정이나 성향에 호소하여 특정 방식으로 행동하도록 유도하는 ‘호소적 기능’이 있다(Nord, 1995, 김순영, 2009, pp. 7-8에서 인용됨). 이는 원서 제목의 기능을 말하는 것이고, 번역서 제목의 기능도 이와 유사하지만, 번역 제목에는 목표 문화권 독자와 장르적 특성을 중요시하는 특징이 있다.

표 1

번역 제목의 기능(Nord, 1995, p. 264)

1. 차별적 기능 (distinctive function)	번역 제목은 목표 문화권의 다른 책 제목들과 구별되어야 한다(Each title has to be distinct with regard to the culture-specific title corpus it forms part of).
2. 메타텍스트적 기능 (metatextual function)	번역 제목은 목표 문화권 장르 규범을 준수해야 한다(Each title has to conform to the genre conventions of the culture it belongs to).
3. 친교적 기능 (phatic function)	번역 제목은 목표 문화권 독자의 주의를 사로잡아야 하고, 필요하다면 일정 기간 목표 독자에게 기억되어야 한다(Each title must be appropriate to attract the attention of its culture-specific audience and, if necessary, to be remembered over a certain period of time).
4. 지시적 기능 (referential function)	책의 정보를 제목에서 전달하고자 한다면 목표 문화권 독자가 자신의 세계 지식을 바탕으로 이해할 수 있는 정보여야 한다(If any piece of information is intended to be transmitted by the title, it has to be comprehensible to the respective addressees with their culture-specific world-knowledge).
5. 표현적 기능 (expressive function)	제목에서 표현된 어떠한 평가 및 감정도 목표 문화권의 가치 체계 속에서 판단되어야 한다(Any evaluations or emotions expressed in the title have to be judged in relation to the value system of the culture in question).
6. 호소적 기능 (appellative function)	제목을 통해 독자에게 호소할 때 목표 문화권 독자의 문화적 수용성 및 기대치를 고려해야 한다(Any appellative intention has to take account of the culture-specific susceptibility and expectations of the prospective readers).

Nord(1995, p. 265)는 <표 1>의 6가지 번역 제목 기능 중 차별적 기능, 메타텍스트적 기능, 친교적 기능은 일반적으로 번역 제목이 수행하는 필수적 기능(essential functions)으로 구분하고, 지시적, 표현적, 호소적 기능은 책마다 또는 상황마다 선택할 수 있는 선택적 기능(optional functions)으로 분류한다.

제목 번역을 통해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번역 전략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먼저, 김순영과 이선영(2015)은 번역 전략을 원천어

중심 전략과 목표어 중심 전략으로 구분한 Newmark(1988)의 8가지 번역 전략 V 다이어그램을 기반으로 총 10가지 제목 번역 전략을 제시하고, 이를 영한 제목 번역과 한영 제목 번역으로 구분하여 적용한다. 그리고 국내 주요 출판사 편집부 소속 전문가를 대상으로 인터뷰를 시행하여 제목 번역 및 선정 과정을 살펴보았다. 소설책 제목의 영한 번역과 한영 번역 간에는 번역 목적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한영 번역 소설의 경우 주로 한국 문학을 소개할 목적에 따라 번역 및 출판 지원 사업을 통해 해외에 번역·출판되는 경우가 많고, 영한 번역 소설의 경우 이미 해외에서 널리 알려지거나 국내에서 시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작가 또는 작품을 선정하여 전략적으로 제목을 번역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래서 한국 문학 제목을 영어로 번역하는 한영 번역에서는 시장성을 따지기보다 원작을 보존하고자 하는 목적이 더 크기 때문에 한영 제목 번역에서는 원천어 중심 번역 전략이 훨씬 더 많이 채택된 반면, 영한 제목 번역에서는 목표어 중심의 소동적 번역이 상대적으로 높은 출현 빈도를 보인다고 하였다(김순영과 이선영, 2015, pp. 41-43).

그런데 2000년부터 해외에서 출간된 한국소설 번역 작품의 제목 번역을 조사한 이현지(2022)의 연구를 살펴보면, 2010년 이후 제목 번역의 다시쓰기 전략 및 빈도수가 확연하게 달라진 점을 지적한다. 2000년~2009년에 비해 2010년 이후에 번역된 된 한국소설의 영어 제목에서는 목표어 중심 번역 전략인 다시쓰기 전략을 택한 사례가 상당히 증가하였고, 번역 양상도 다양해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예를 들어, 강경애의 소설 『인간문제』가 *From Wonso Pond*(원소라는 이름의 연못)로 번역된 사례처럼 원제목과 번역 제목 간의 형태적 연결성을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방식의 다시쓰기 전략이 2010년 이후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한국 문학작품에 대한 해외 독자의 관심이 증가하면서 목표 문화권 독자의 이해 및 수용을 좀 더 신경 쓰게 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특히, 2010년 신경숙의 소설 『엄마를 부탁해』 영역본인 *Please Look After Mom*이 해외에서 큰 인기를 끌기 시작하고, 2016년 『채식주의자』와 영역본 *The Vegetarian*이 맨부커상을 수상하면서 한국 문학작품에 대한 해외 독자의 관심이 급격히 증가하였고(최훈진, 2023; Shin, 2020), 이는 번역 전략에도 영향을 끼쳐서 한국 문학 번역 과정에 독자 수용성

(acceptability)을 더욱 중시하기 시작하였다(Peggy & Shim, 2022, p. 15). 과거에는 한국 문학 제목 영역 시 시장정보다는 원작 보존의 목적이 더 컸기 때문에 원천어 중심 번역 전략을 더 많이 사용하였지만, 한국 문학이 세계적으로 알려지고, 독자층이 확대되면서 번역 시 해외 독자의 수용성을 중시하면서 제목을 번역할 때 과감한 방식의 다시쓰기 전략이 증가하는 경향을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챗GPT를 이용하여 제목 번역을 수행할 때 어떤 방식으로 접근하여 과감한 다시쓰기를 할 수 있을지 살펴보겠다.

3. 연구 방법

우선 이현지(2022)의 연구를 기반으로 해외에서 2010년 이후 출간된 한국 문학 작품 영역본의 제목 중 다시쓰기 전략을 채택하여 제목을 번역한 사례 10개를 수집하였고 그 목록은 다음과 <표 2>와 같다.

표 2

2010년 이후 해외 출간된 한국 문학 원제목과 번역 제목

작가	번역가	원제목(출판 연도)	번역 제목(출판 연도)
1. 김영하	Kim Chi-young	빛의 제국(2006)	Your Republic is Calling You(2010)
2. 배수아	Deborah Smith	에세이스트의 책상(2003)	A Greater Music(2016)
3. 배수아	Sora Kim Russell	철수(1998)	Nowhere to Be Found(2015)
4. 배수아	Deborah Smith	울빠미의 없음(2010)	North Station(2017)
5. 배수아	Deborah Smith	서울의 낮은 언덕들(2011)	Recitation(2017)
6. 신경숙	Sora Kim Russell	어디선가 나를 찾는 전화벨이 울리고(2008)	I'll Be Right There(2014)
7. 이정명	Kim Chi-young	별을 스치는 바람(2012)	The Investigation(2014)

8. 천운영	Bruce Fulton, Ju-chan Fulton	생강(2011)	The Catcher in the Loft(2019)
9. 한강	Deborah Smith	소년이 온다(2014)	Human Acts(2016)
10. 황정은	Jeon Seung-hee	양의 미래(2013)	Kong's Garden(2019)

<표 2>의 번역 제목은 2010년 이전과 달리 과감하게 원제목의 형태적 특징에서 벗어나 다시쓰기 전략을 채택한 사례이다. Nord(1995)에 따르면, 번역가가 다른 문화권 독자를 위해 책 제목을 번역할 때 그 제목이 지닌 기능을 달성하기 위해 제목의 형태적 특징을 바꾸는 것은 문제 되지 않는다. 제목 번역 시 중요한 것은 독자가 해당 문학작품을 온전히 이해하도록 번역 제목이 원제목과 동일한 의사소통적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다(pp. 262-268). 그러므로 원제목에서 탈피하여 과감한 다시쓰기를 한 <표 2>의 제목 번역 사례가 잘못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현지(2022)의 연구에서는 인간 번역가의 제목 다시쓰기 번역 사례를 모두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는 않는다. 예를 들어, 『올빼미의 없음』을 *North Station*이라고 번역한 사례의 경우, 원제목에서 ‘없음’이라는 단어가 소설에서 ‘소중한 이의 부재’ 또는 ‘죽음’을 상징하며 중요한 의미를 전달한다고 저자가 인터뷰에서 밝혔다. 그리고 우리말에서 빈번하게 사용되지 않는 ‘-의 없음’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독자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친교적 기능을 수행한다고 한다. 그런데 이 소설의 3장 소제목인 ‘복역’을 선택하여 제목으로 사용하였고, 그 결과 소설의 주제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던 원제목의 지시적 기능과 독자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친교적 기능이 번역 제목에서 사라졌다(2022, p. 37).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제목 다시쓰기 번역 사례 중 제목으로서의 기능을 적절하게 수행하고 있다고 평가한 다음 네 개의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표 3

번역 제목으로서 적절한 기능을 수행한다는 평가를 받은 다시쓰기 번역 제목

작가	번역가	원제목(출판 연도)	번역 제목(출판 연도)
1. 김영하	Kim Chi-young	빛의 제국(2006)	Your Republic is Calling You(2010)
2. 배수아	Sora Kim Russell	철수(1998)	Nowhere to Be Found(2015)
3. 신경숙	Sora Kim Russell	어디선가 나를 찾는 전화벨이 울리고 (2008)	I'll Be Right There(2014)
4. 천운영	Bruce Fulton, Ju-chan Fulton	생강(2011)	The Catcher in the Loft(2019)

이 네 개의 사례를 중심으로 인간 번역가의 다시쓰기 번역 제목과 챗GPT의 다시쓰기 번역 제목을 비교해 본다. 챗GPT 프롬프트를 입력할 때는 두 단계로 진행한다. 제목은 해당 작품의 내용과 주제를 대변하는 차별적 기능을 필수적으로 수행해야 하므로 첫 번째 프롬프트에서는 책의 줄거리 및 주제를 파악하라는 프롬프트를 입력하고, 두 번째 프롬프트에서는 책의 주제 및 제목의 기능을 반영하여 원제목을 다시쓰기 번역하라고 입력한다. 이 과정에서 어떤 정보를 구체적으로 프롬프트에 입력할 수 있는지 그 과정을 기술하고, 챗GPT 번역 결과물과 인간 번역가의 제목과 비교하며 챗GPT 번역 결과물이 인간 번역가의 번역 제목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4. 챗GPT를 활용한 제목 번역 분석 결과

4.1 *Your Republic is Calling You vs. Empire of Hidden Truths*

김영하의 소설 『빛의 제국』은 남과 간첩인 기영의 이야기이다. 간첩이라는 신분을 숨기고 한 가정의 가장으로 남한에서 30년 가까이 산 기영은 갑

자기 북으로 돌아오라는 명령을 받고 혼란에 빠진다. 북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던 기영은 남한의 감시하에 북한을 속이며 결국 북으로 돌아가지 않는다. 이 책의 영역본 제목은 *Your Republic is Calling You*인데, 이 번역 제목은 책의 정보를 전달하는 지시적 기능과 이 책의 장르를 알려주는 메타텍스트적 기능, 영미권 독자의 수용성을 고려한 호소적 기능을 동시에 수행한다. 이 책의 주요 스토리는 기영이 북으로 귀환하라는 명령을 받은 순간부터 발생하는 여러 사건과 갈등을 보여주고, 원제목의 ‘제국’을 번역 제목에서는 ‘Republic’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북한이 연관된 이야기라는 것²⁾을 짐작할 수 있다(이현지, 2022, p. 24). 그러므로 영문 제목은 스토리를 전달하는 지시적 기능을 수행하고, 영어 번역본에서는 ‘Republic’이라는 단어를 제목에 사용하며 남북한 국기를 앞표지에 제시함으로써 이 책이 스파이물이라는 것을 암시하는 메타텍스트적 기능도 수행한다.³⁾ 또한, 이 영문 제목은 스릴러 장르를 선호하는 목표 독자의 성향(최현미, 2018)을 반영하였다. 미국 공영매체 NPR은 이 책을 “A Kafkaesque Spy Thriller Straddles Two Koreas(남북을 넘나드는 카프카식 스파이 스릴러)”라고 소개하며 스릴러물로 이 책을 홍보했고, 영문판 겉표지에서도 남북 국기를 각각 제시하며 이 책이 스파이 스릴러처럼 보이게끔 하며(이현지, 2022, p. 24) 스릴러 장르를 좋아하는 영미권 독자에게 호소하고 있다.

그렇다면 챗GPT를 활용한 다시쓰기 번역 제목이 책 스토리를 반영하는 지시적 기능과 스릴러를 선호하는 영미권 독자에게 호소하는 호소적 기능을 수행하는 제목으로 다시쓰기 할 수 있는지 살펴보자. 먼저, 챗GPT에 책의 줄거리를 알려달라는 1단계 프롬프트를 <표 4>와 같이 입력하자 상당한 분량으로 줄거리를 요약하여 제시하는데,⁴⁾ 마지막 단락에 줄거리 핵심을 짚

2) 북한의 공식 국문 명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고 영문 명칭은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이다.

3) 메타텍스트적 기능은 제목과 앞표지 디자인이 어우러져서 해당 책의 장르를 짐작해 볼 수 있게 하지만, 표지 디자인 논의는 본 연구 범주를 넘어서므로 후속 연구를 통해 진행하고자 한다.

4) 이 책의 줄거리를 제시하라는 1단계 프롬프트에 대해 챗GPT는 굉장히 상세하게 책 줄거리 및 주제를 제시한다. 지면 제약으로 챗GPT가 제시한 답변은 본고의 부록에 수록한다. 이 답변을 보면, 챗GPT가 내용과 주제를 반영한 차별적 기능을

게 요약하여 제시한다.

표 4

챗GPT를 통한 줄거리 추출 과정

1단계 프롬프트	What is the story of <i>Your Republic is Calling You</i> by Kim Young-ha?
답변	Overall, “Your Republic is Calling You” is a gripping exploration of the complexities of identity, loyalty, and the personal costs of living a life dictated by political agendas.

<표 4>에서 제시한 줄거리와 스릴러를 선호하는 영미권 독자의 선호도를 반영하여 제목을 다시쓰기 및 영문 번역하라는 프롬프트를 <표 5>와 같이 입력한다.

표 5

챗GPT를 활용하여 줄거리 및 독자 선호도를 반영한 영문 제목 추출 과정

2단계 프롬프트	Considering the plot summary of <i>Your Republic is Calling You</i> , can you rewrite and translate the original title 빛의 제국 into English, reflecting the theme and the preferences of Anglo-American readers who enjoy thrillers?
답변	Considering the appeal of thrillers to Anglo-American readers, a title that reflects both the novel's intrigue and its thematic depth could be “ Shadows of the Empire ” or “ Empire of Hidden Truths .” These titles suggest a story filled with mystery, tension, and the exploration of complex, concealed elements within an empire, aligning well with thriller genre conventions.

그 결과 챗GPT가 제시한 제목은 *Shadows of the Empire*와 *Empire of Hidden Truths*이다. 이 제목을 인간 번역가의 제목과 비교해 볼 때 이 책이 북으로 귀환하라는 명령을 받은 남과 간첩의 이야기라는 것을 알아채기 어렵다. 인간 번역가의 제목에서 사용된 ‘Republic’은 북한을 연상할 수 있는

수행하는 번역 제목을 제안할 수 있을 만큼 이 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단어이지만, 챗GPT가 사용한 ‘Empire’는 북한보다는 거대 기업 또는 로마 제국과 같은 서구의 이미지를 연상할 수 있다. 그러므로 챗GPT가 제시한 제목에서는 제목의 지시적 기능이 약화된 것이다. 대신 ‘shadows(그림자)’라든지 ‘hidden truths(숨겨진 진실)’⁵⁾와 같이 스릴러 작품 제목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단어를 사용하여 이 책이 스릴러물이라는 느낌을 전달하므로 영미권 독자에게 어필하는 호소적 기능과 스릴러물이라는 것을 암시하는 메타텍스트적 기능은 유지되었다고 할 수 있다.

『빛의 제국』에 대한 인간 번역가 번역 제목과 챗GPT 번역 제목의 기능적 측면을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표 6
『빛의 제국』 번역 제목 기능 비교

	인간 번역가 번역 제목	챗GPT 번역 제목
메타텍스트적 기능	O	O
지시적 기능	O	X
호소적 기능	O	O

챗GPT 번역 제목이 인간 번역가의 번역 제목만큼 복합적 기능을 충분히 수행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원제목을 직역하지 않고 다시쓰기 하여 번역 제목을 생산하면서 창의적 개입을 한 것을 볼 수 있다. 이 사례의 경우 챗GPT 번역이 인간 번역과 기계번역의 중간쯤 위치한다고 한다는 이창수(2024)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4.2 *Nowhere to Be Found vs. John Doe*

두 번째 사례는 배수아의 소설 『철수』이다. 이 책은 불우한 가정 환경에서 힘겹게 살아가는 20대 중반 여자 주인공이 중산층의 평범한 남자 ‘철수’

5) 예를 들어, 스릴러 작가 Alex North의 2020년 작품 제목은 *The Shadows*이고, Ariana Franklin이 2007년에 발표한 스릴러 작품의 제목은 *City of Shadows*이다. 또한 Caroline Kepnes가 2016년 발표한 스릴러 작품 제목은 *Hidden Bodies*이고, John Sandford가 2005년 발표한 러시아 스파이 스릴러 작품 제목은 *Hidden Prey*이다.

와 교체하면서 ‘평범함’ 속에 내재된 ‘평온함’을 갈망하지만, 결국 자신 내면에 숨겨진 고통과 현실을 더욱 자각하게 된다는 내용이다. 주인공이 ‘철수’와 멀어지면서 한국 사회에서 ‘철수’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평범함’과 그 안의 ‘평온함’이 얼마나 갖기 어려운 것인지, 즉 평범하게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암시한다. 인간 번역가는 원제목 『철수』를 *Nowhere to Be Found*라는 제목으로 다시쓰기 번역하여 ‘철수’라는 이름이 상징하는 ‘평범함’은 쉽게 찾을 수도, 가질 수도 없다는 책의 내용을 전달한다. 즉 번역 제목을 통해 지시적 기능을 강화한 것이다. 그리고 ‘nowhere to be found’라는 영어 표현은 ‘어디서도 찾을 수 없다’, ‘행방이 묘연하다’는 의미의 관용적 표현으로 영미권에서 널리 사용되는 표현이다. 이렇듯 인간 번역가는 영미권 독자에게 친숙한 관용 표현을 제목으로 사용하여 번역 제목의 친교적 기능을 강화하였다.

그렇다면 챗GPT를 활용하여 다시쓰기 제목 번역을 할 경우에도 이와 같은 지시적 기능과 친교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지 살펴보자. 앞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1단계 프롬프트를 통해 책의 줄거리를 파악하였다.

표 7

챗GPT를 통한 줄거리 추출 과정

1단계 프롬프트	What is the story of <i>Nowhere to Be Found</i> by Bae Suah?
답변	<p>The protagonist, a university graduate, finds herself working a series of low-paying, temporary jobs. She lives with her family, including her sick mother, in a cramped and poor household. Her life is characterized by a sense of disconnection and aimlessness, a feeling that she is merely drifting through life without a clear purpose or future.</p> <p>Throughout the novel, the protagonist grapples with her sense of identity and place in society. She reflects on her relationship with her family, her encounters with friends, and a fleeting, ambiguous romantic relationship with a man named Cheolsu. Cheolsu is a soldier who has gone AWOL, symbolizing a desire to escape from the oppressive circumstances of life.</p> <p>The narrative delves into the protagonist's introspective thoughts and observations, painting a picture of her inner world and the societal pressures she faces. The novel explores themes of alienation, the</p>

	mundane reality of everyday life, and the struggle to find meaning in a world that often seems indifferent.
--	---

<표 7>에서 제시한 줄거리를 반영하고 번역 제목이 친교적 기능을 수행하도록 <표 8>과 같이 2단계 프롬프트를 입력하자 챗GPT가 제시한 답변은 다음과 같다.

표 8

챗GPT를 활용하여 줄거리 및 친교적 기능을 고려한 영문 제목 추출 과정

2단계 프롬프트	Considering the plot summary of <i>Nowhere to Be found</i> , can you rewrite and translate the original title “철수” into English while maintaining the phatic function for Anglo-American readers?
답변	<p>The original Korean title “철수” (Cheolsu) carries a common and familiar tone, which can be seen as a phatic element - a way to connect with the audience through familiarity and everyday language. To translate this into English while maintaining a similar effect, we might choose a title that uses a common, relatable name or phrase that suggests ordinariness or anonymity, reflecting the themes of everyday life and the protagonist's search for identity.</p> <p>Here are a few suggestions:</p> <p>“John Doe” - Using a name like “John Doe” conveys anonymity and could represent the universal or everyman aspect of the character's experience.</p> <p>“A Day in the Life of Jane” - A title like this could suggest the focus on the protagonist's daily experiences and her introspective journey.</p> <p>“Finding Jane” - This title uses a common name and hints at the protagonist's quest for self-discovery.</p> <p>“An Ordinary Day” - Reflecting the mundane aspects of life that the protagonist experiences, which are central to the story's themes.</p>

챗GPT의 답변을 살펴보면, 번역 제목이 수행하는 친교적 기능에 대해 “connect with the audience through familiarity and everyday language(익숙함과 일상적 언어 사용을 통해 독자와 연결성을 형성함)”라고 정확하게 설명하고, 이를 반영한 다시쓰기 번역 제목으로 “John Doe”, “A Day in the Life of Jane”, “Finding Jane”, “An Ordinary Day” 이 네 가지를 제시한다. 그런데 이

소설에서는 주인공인 여성 화자의 이름을 일부러 언급하지 않는데, 제목에 ‘Jane’을 넣게 되면 독자는 소설에서 드러내지 않은 여성 화자의 이름을 ‘Jane’으로 인지하게 되고, 화자의 소외감, 상실감 등을 무기명을 통해 상징적으로 보여준 원작의 내용과 의도는 변하게 된다. 그러므로 ‘Jane’이 들어간 제목은 채택하기 어렵다.

그리고 출판사 서평에서는 주인공을 “냉소적인 시선으로 가난과 부적응의 상태를 견뎌 나가는 인물”⁶⁾이라고 소개하는데, 챗GPT가 제안한 제목 “An Ordinary Day”는 소설의 핵심 내용을 전달한다고 보기 어렵다. 주인공이 추구하는 것은 평범함이지만, 평범하게 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보여주는 것이 소설의 핵심 내용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An Ordinary Day”는 번역 제목으로서 지시적 기능을 제대로 수행한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마지막으로 평범함을 상징하는 화자의 남자 친구이자 제목인 ‘철수’를 ‘일반적인 남성’이라는 상징적 의미를 지닌 ‘John Doe’로 번역한 경우 ‘철수’와 등가적인 의미가 있는 호칭으로 번역한 것이기는 하지만, 그러면 번역서의 작중 인물명인 ‘Cheolsu’와 달라지므로, 이 인물이 평범함을 상징하고, 이 인물과 여주인공의 관계가 멀어지면서 ‘평범함’은 가까이 있지만 쉽게 달성할 수 없다는 내용을 전달하지 못하게 된다. 결국 ‘John Doe’의 경우 영미권 독자에게 친숙한 이름을 사용하여 ‘친교적 기능’은 달성할 수 있지만, 올바른 지시적 기능을 달성하지는 못한다.

『철수』에 대한 인간 번역가 번역 제목과 챗GPT 번역 제목의 기능적 측면을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표 9

『철수』번역 제목 기능 비교

	인간 번역가 번역 제목	챗GPT 번역 제목
친교적 기능	O	O
지시적 기능	O	X

이 사례의 경우 인간 번역가의 제목은 제목으로서 여러 기능을 수행하

6) 교보문고 출판사 서평(<https://product.kyobobook.co.kr/detail/S000001127615>)

지만, 챗GPT 번역 제목은 여러 기능을 복합적으로 수행하지는 못하는 것을 볼 수 있다.

4.3 *I'll Be Right There vs. Echoes of a Distant Call*

세 번째 살펴볼 제목은 신경숙의 『어디선가 나를 찾는 전화벨이 울리고』이고, 인간 번역가가 번역한 영문 제목은 *I'll Be Right There*이다. 이 소설은 엄마를 먼저 떠나보내거나 친언니가 실종되는 등 각자 상황에서 상실감을 경험한 청년들에게 그들 존재의 필요성을 일깨워주고, 언제든 전화를 걸어줄 누군가가 여기 있다는 위로를 전하고자 하는 소설이다. 다시쓰기 번역 제목인 *I'll Be Right There*는 너를 위해 옆에 있어 줄 누군가가 있다는 것을 인식시키고, 원제목이 독자에게 전달하는 위로의 말을 명시적으로 풀어낸 제목이다. 즉, 번역 제목에서는 상징적으로 ‘전화벨’을 통해 누군가 내게 전화해 줄 존재가 있으므로 나는 혼자가 아니라는 ‘위로’를 주고자 하는 소설의 핵심 주제를 명시적으로 전달하며 지시적 기능을 강화한다. 또한 이 소설이 서로를 의지하며 성장해 가는 청년 소설 장르라는 것을 제목을 통해 더욱 명시적으로 드러내므로 장르를 짐작게 하는 번역 제목의 메타텍스트적 기능도 강화되었다(이현지, 2022, p. 38-39).

그렇다면 챗GPT를 활용하여 다시쓰기 제목 번역을 할 경우에도 이와 같은 지시적 기능과 메타텍스트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지 살펴보자.

표 10

챗GPT를 통한 줄거리 추출 과정

1단계 프롬프트	What is the story of <i>I'll Be Right There</i> by Shin Kyung-Sook?
답변	"I'll Be Right There" is a deeply emotional and introspective novel that offers a vivid portrayal of a turbulent period in South Korea's history, while also providing a universal exploration of human connections and the passage of time.

1단계 프롬프트에서 이 책의 줄거리와 핵심 주제를 추출했다. 줄거리는 다소 길게 정리하였는데, 마지막에 핵심 주제를 <표 10>의 답변에 제시한

것처럼 한 단락으로 보여주었다. 이 줄거리와 메타텍스트적 기능을 고려한 제목 다시쓰기 번역을 수행하도록 2단계 프롬프트를 <표 11>과 같이 입력하였고, 답변은 다음과 같다.

표 11

챗GPT를 활용하여 지시적, 메타텍스트적 기능을 고려한 영문 제목 추출 과정

2단계 프롬프트	Considering the plot summary of <i>I'll Be Right There</i> , can you rewrite and translate the original title “어디선가 나를 찾는 전화벨이 울리고” into English while emphasizing the referential and metatextual functions for Anglo-American readers?
답변	The original Korean title “어디선가 나를 찾는 전화벨이 울리고” translates to “Somewhere, a Phone is Ringing for Me.” To emphasize the referential and metatextual functions for Anglo-American readers, you might consider a title that captures both the literal meaning and the emotional resonance implied by the phrase. Here’s a possible translation: “Echoes of a Distant Call” This title maintains the sense of longing and connection suggested by a phone ringing for someone from somewhere unknown, while also evoking the reflective and introspective tone of the novel. It suggests both the literal ringing of a phone and the metaphorical call from the past, capturing the novel’s themes of memory and reflection.

두 번째 프롬프트에서 챗GPT가 제시한 제목은 *Echoes of a Distant Call* (멀리서 걸려 온 전화벨의 메아리)이다. 챗GPT는 ‘전화벨’의 상징적 의미를 과거로부터 걸려 온 ‘전화벨’이라고 해석하여 ‘위로’보다는 과거에 대한 ‘기억’과 ‘회상’에 좀 더 초점을 맞추었다. 이 소설은 네 명의 등장인물들이 함께 다녔던 대학의 교수가 임종을 앞두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8년 전 헤어졌던 친구로부터 전화를 받으며 시작된다. 이들이 과거 대학 시절을 회상하며 기억을 떠올리는 내용이 등장하기 때문에 ‘기억’과 ‘회상’을 담은 번역 제목은 줄거리를 반영하며 지시적 기능을 수행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Echoes of a Distant Call*이라는 챗GPT 번역 제목은 이 소설이 상실을 경험한 청년들을 위로하는 위로 소설이라는 것을 전달하지 못하며 메타텍스트적 기능을 수행하지 못한다. 또한 인간 번역가는 영미권에서 상대방을 위로

할 때 관용적으로 사용하는 표현인 ‘I’ll be right there’를 제목으로 사용하여 영미권 독자들과 친교적 관계를 형성한다. 그러나 챗GPT 제목 번역은 영어에서 관용적으로 사용하는 표현은 아니므로 친교적 기능을 수행한다고 하기 어렵다.

이 책에 대한 인간 번역가 번역 제목과 챗GPT 번역 제목의 기능적 측면을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표 12

『어디선가 나를 찾는 전화벨이 울리고』 번역 제목 기능 비교

	인간 번역가 번역 제목	챗GPT 번역 제목
메타텍스트적 기능	O	X
친교적 기능	O	X
지시적 기능	O	O

이 사례도 마찬가지로 인간 번역가의 번역 제목은 복합적 기능을 수행하지만, 챗GPT 번역 제목은 여러 기능을 동시에 충족하지는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4 *The Catcher in the Loft vs. Hidden Spice*

마지막으로 살펴볼 제목은 천운영의 『생강』이다. 이 책을 번역한 인간 번역가가 다시쓰기 번역한 제목은 *The Catcher in the Loft*이다. 이 소설은 1980년대 운동권 학생을 대상으로 잔혹한 고문을 가하는 악명 높은 경찰관 ‘안’과 그의 가족에 대한 이야기이다. ‘안’은 한 가정의 평범한 아버지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불법적 고문 행위를 자행했던 과거를 지닌 이중적 삶을 사는 사람이다. 그의 고문 행위가 갑자기 세상에 알려지고, 그는 현상수배범이 되어 도망자 신세가 된다. 그의 딸 ‘선’은 이런 아버지 이중적 삶에 대해 환멸과 증오를 느끼지만, 남편을 보호하고자 하는 어머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락방에 숨어서 은둔생활 하는 아버지를 돌보는 역할을 맡는다.

원제목으로 사용한 ‘생강’은 한국 김치 양념에서 중요한 재료인데, 꼭 필요하기는 하지만 막상 김치를 먹을 때 생강이 씹히면 씹쓸한 맛에 뺄어버

리게 된다. 이 소설에서 ‘안’은 군부 정권하에서는 심복으로서 꼭 필요한 존재로 활동했지만, 눈에 띄게 드러나면 버려지는 ‘생강’ 같은 존재이고, 원제목은 이러한 지시적 기능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번역 제목에서는 과거 운동권 학생들을 잡아 와 가차 없이 고문했던 ‘catcher’ 역할을 한 ‘안’이 지금은 다락방에 숨어 지내는 신세가 된 것을 좀 더 명시적으로 설명하며 *The Catcher in the Loft*라는 영문 제목으로 다시쓰기 하였다. 즉, 영문 제목은 제목을 통해 독자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보여줌으로써 지시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게다가 이 제목은 영미권 독자에게는 너무나 유명한 Salinger의 *The Catcher in the Rye*(호밀밭의 파수꾼)와 비슷한 형태적 구조를 사용하기 때문에 독자의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호소적 기능, 그리고 친숙한 표현을 사용하였으므로 친교적 기능도 수행하는 다시쓰기 영문 번역 사례라고 할 수 있다(이현지, 2022, p. 42-44).

그렇다면 챗GPT를 활용하여 다시쓰기 제목 번역을 할 경우에도 이와 같이 지시적, 호소적, 친교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지 살펴보자.

표 13

챗GPT를 통한 줄거리 추출 과정

1단계 프롬프트	What is the story of <i>The Catcher in the Loft</i> by Un-yōng Ch'ōn?
답변	“ <i>The Catcher in the Loft</i> ” by Un-yōng Ch'ōn, translated by Bruce and Ju-Chan Fulton, is a gripping novel inspired by real historical events in South Korea. It follows the story of a former torture specialist named An, who becomes a fugitive hiding in his own home from 1988 to 2000. The narrative is dual, alternating between An and his college-aged daughter, Sōn, who initially idolizes her father as a patriotic policeman.

먼저 1단계 프롬프트에서 이 책의 줄거리와 핵심 주제를 추출했다. 줄거리는 다소 길게 정리하였는데, 핵심 줄거리는 <표 13>의 답변과 같이 제시하였다. 이 줄거리와 호소적, 친교적 기능을 고려한 제목 다시쓰기 번역을 수행하도록 2단계 프롬프트를 <표 14>와 같이 입력하였고, 답변은 다음과 같다.

표 14

챗GPT를 활용하여 지시적, 호소적, 친교적 기능을 고려한 영문 제목 추출 과정

2단계 프롬프트	Can you rewrite and translate the original title “생강” into English while reflecting the story and emphasizing the appellative and phatic functions for Anglo-American readers?
답변	<p>Certainly! To translate and rewrite the original title “생강” (Saenggang), which means "Ginger," while reflecting the story and emphasizing the appellative and phatic functions for Anglo-American readers, we can consider the thematic elements of the narrative, such as the themes of hidden truths, family dynamics, and the painful legacy of the father's past.</p> <p>Suggested Title: “Hidden Spice”</p> <p>Explanation:</p> <p>Appellative Function: The title “Hidden Spice” effectively names an element that is central to the story. “Spice” relates to the original “Ginger,” maintaining a connection to the original title. "Hidden" reflects the fugitive status of the father and the concealed truths that the daughter uncovers.</p> <p>Phatic Function: The phrase “Hidden Spice” engages readers by invoking curiosity and a sense of mystery. It suggests a narrative filled with hidden depths and secrets, prompting readers to explore the underlying themes of the novel.</p> <p>This title aims to capture the essence of the original while appealing to English-speaking readers by emphasizing the emotional and thematic significance of the story.</p>

이 책의 줄거리와 호소적, 친교적 기능을 반영하여 영미권 독자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제목으로 다시쓰기 번역하라는 프롬프트에 대한 답변으로 챗GPT가 제시한 제목은 *Hidden Spice*이다. 앞서 김영하의 소설 『빛의 제국』을 미스터리물을 선호하는 영미권 독자에게 호소할 수 있는 제목으로 번역하면서 챗GPT는 *Empire of Hidden Truth*를 제시했고, ‘hidden’이라는 단어가 미스터리 장르 소설 제목에 자주 등장한다는 것을 반영하여 ‘hidden’을 제목에 넣음으로써 이 번역서가 미스터리물처럼 보이도록 하였다. 그리고 ‘생강’의 문화적 의미는 우리 문화권과 영어 문화권이 다르므로 ‘생강’을 직역하여 ‘ginger’라고 하지 않고, 상위어인 ‘spice(향신료)’라고 번역했다. 결과적으로 챗GPT에서는 이 책의 제목이 ‘hidden spice’라는 어색한 제목으로 다시쓰

기 번역되었고, 이는 영미권 독자에게 즐거리도 대변하지 못하고, 제목의 호소적, 친교적 기능 또한 상실하였다.

표 15
『생강』 번역 제목 기능 비교

	인간 번역가 번역 제목	챗GPT 번역 제목
친교적 기능	O	X
지시적 기능	O	X
호소적 기능	O	X

이 사례의 경우 인간 번역가의 번역 제목이 친교적, 지시적, 호소적 기능을 복합적으로 수행하는 것에 비해 챗GPT 번역 제목은 어떤 기능도 수행하지 못하고 엉뚱한 제목을 제시한 것을 볼 수 있다.

5.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 살펴본 사례에 국한해서 볼 경우, 챗GPT가 제시하는 다시 쓰기 번역 제목은 인간 번역 제목과 비교해 볼 때 그 기능을 완전히 수행하지는 못한다. 지시적 기능 또는 호소적 기능 등 어느 한 기능은 수행하지만, 여러 기능을 동시에 아우르는 복합적 기능을 수행하지는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문학번역에서는 내포된 의미와 형태의 복합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하는데(최미경, 2007, p. 153) 챗GPT가 제시하는 제목 번역을 살펴보면 다양한 측면을 복합적으로 고려하는 능력은 부족하다. 그렇지만 인간 번역가 및 출판 관계자가 번역 제목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챗GPT가 제시하는 것을 다양한 가능성 중 하나로 참고하여 최종적으로 창의적 번역 제목을 결정하는 과정에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Rudan(2023)의 연구에서도 문학번역에서 AI 번역을 활용하면 인간의 창의성을 억제하기 보다는 오히려 증강할 수 있다고 한다. 문학번역 시 AI 번역 결과물을 단지 포스트 에디팅 하는 경우에는 인간의 창의성이 제한될 수 있

지만, AI 결과물을 여러 옵션 중 하나로 참고하여 다시쓰기 번역을 수행할 때는 오히려 인간의 창의성을 향상할 수 있는 것이다.

문학번역에서도 제목 번역은 특히 창의성이 필요한 부분이고, 목표문화, 독자, 줄거리, 맥락, 상황 등 수많은 요소를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창의적으로 개입해야 하는 열린 공간이다(이창수, 2024, p. 31). 이 열린 공간에서 챗GPT가 제시하는 결과물을 하나의 옵션으로 참고하여 인간 번역가가 최종적인 결과물을 도출 과정에 활용하면 다양한 창의적 결과물을 도출해 낼 수 있을 것이다.⁷⁾

이를 바탕으로 일반 번역과는 다른 새로운 측면에서 문학번역에서의 생산성 향상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AI를 활용하여 번역할 경우, 시간과 노력을 줄여서 생산성을 향상하고자 하는데, 문학번역에서의 생산성 향상은 타 장르 번역에서의 생산성과는 다르다. 일반적으로 번역 과정에서 생산성을 향상한다는 것은 번역 중 잠시 멈춤(pauses)과 같은 인지적 노력이나 번역 수행 시간을 줄이는 것을 말하는데, 문학번역에서는 시간과 노력을 줄이는 것보다 목표 독자와 문화에 가장 적합한 목표 텍스트를 생산하여 목표 문화권 독자도 원천 문화 독자와 동일한 경험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번역 과정에 번역가의 창의적 개입이 중요하고, 번역가가 창의성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시간과 인지적 노력을 투입해야 한다. 창의적 결과물을 얻기 위해 문학 번역가는 기꺼이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므로 문학번역에서 시간과 노력을 줄이는 생산성을 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Kenny & Winters, 2020; Guerberof-Arenas & Toral, 2022; López & Caro, 2016). 대신 창의적 결과물을 도출하는 과정에 챗GPT 등 AI 번역을 활용하여 다양한 가능성과 방향을 참고할 수 있다면 이것이 문학번역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본 연구에는 여러 한계점이 있다. 이창수(2024)의 연구에서도 언급하였듯이, 번역 시 챗GPT를 활용할 때 프롬프트를 어떻게 입력하느냐에 따

7) Ojanperä와 Vuori(2021, p. 164)에 의하면 AI는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몇 초안에 분석하여 인간에게 다양한 옵션을 추천한다. 인간은 그 옵션 중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것을 선택 및 수정하면서 AI에 대한 통제력을 유지하면서 AI와의 공동 작업을 즐길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고 한다.

라 챗GPT가 제시하는 결과물은 달라진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도 프롬프트를 변경하면 결과물도 달라질 것이고, 본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신지선(2024)의 연구에서도 강조하였듯이, 챗GPT를 활용할 때 많은 시행착오를 거친 후 더 나은 답변을 받아볼 수 있으므로 다양한 프롬프트를 입력해 보며 챗GPT와 상호작용하는 것도 훈련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챗GPT를 활용하여 창의적인 다시쓰기를 시도하고자 할 때 제목 번역의 경우 어떤 방식으로 프롬프트를 입력할 수 있을지, 더 나은 방법은 무엇인지 생각해 볼 수 있는 출발점을 제시하였다는 데에서 연구 의의를 찾고자 한다. 세부적인 프롬프트 입력 사례들이 연구를 통해 축적되면 더 나은 답변을 추출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 번역 제목 기능을 평가할 때 연구자의 주관성이 개입될 수 있다는 점도 연구의 한계로 인식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무언가를 평가하는데 있어서 공정성과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해 객관적 평가가 중시되지만, 문학번역 평가에 있어서는 평가 방식과 기준의 객관성 보다는 유연성, 그리고 평가자의 자율성이 중요하다(정혜용, 2019, p. 42).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 기술한 문학번역 제목의 기능 평가 과정은 연구의 한계점이라기 보다는 번역 제목을 바라보고 평가하는 다양한 방식 중 하나로 인식할 수 있을 것이다.

서두에서 언급하였듯이, 문학작품의 제목 번역은 그 작품에 대해 독자와 소통을 시작하는 출발점으로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본 연구에서는 제목 다시쓰기 번역 경향이 길어지는 가운데 챗GPT를 활용하여 제목 다시쓰기 번역이 가능한지 살펴보았다. 결과적으로 챗GPT가 창의적 개입을 하여 다시쓰기 번역이 가능하기는 하지만, 아직 복합적 기능을 수행하는 제목으로 다시쓰기 하기는 무리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챗GPT의 번역 제안이 인간 번역가가 다양한 번역 제목을 구상하는 데 있어서 인지적·창의적 보조 도구가 될 수는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김순영. (2009). 기능주의적 관점에서 본 소설 제목의 번역-하위 장르 별 변환(shift) 현상을 중심으로. *통역과 번역*, 11(1), 3-26.
- 김순영, 이선영. (2015). 영한 및 한영 소설 제목의 번역 양상 고찰. *통역과 번역*, 17(3), 23-44.
- 신지선. (2024). 번역교육에서 챗GPT의 활용 방안 탐구. *번역학연구*, 25(2), 39-67.
- 신천, 조혜진. (2024). 위화 소설 『허삼관 매혈기』 중한번역을 통해 본 문학번역에서의 챗GPT의 활용 가능성. *언어학연구*, 29(1), 51-65.
- 이구용. (2023). AI 문학번역의 유용성 연구. *인문사회과학연구*, 31(4), 620-642.
- 이창수. (2024). 챗GPT, 파파고, 인간 번역가 간의 한영 문학번역 차이점 연구. *번역학연구*, 25(2), 11-37.
- 정혜용. (2019). 문학번역평가에서 문학번역비평으로. *한독문학번역연구* 26회 정기학술대회 논문집 (pp. 29-43).
- 최미경. (2007). 번역의 실제. *한국문학번역원 (편저), 문학 번역의 이해* (pp. 147-164). 북스토리.
- 최현미. (2018. 10. 12.). K-스릴러, 세계문학시장 ‘빅 타이틀’로 떠오르다. *문화일보*. <https://www.munhwa.com/news/view.html?no=20181012MW11253416166>
- 최훈진. (2023. 4. 21.). 훨훨 나는 한국 문학... “특유의 독창성 매력”. *동아일보*. <https://www.donga.com/news/Culture/article/all/20230420/118935952/1>
- Dorothy, K., & Winters, M. (2020). Machine translation, ethics and the literary translator’s voice. *Translation Spaces*, 9(1), 123-149.
- Guerberof-Arenas, A., & Toral, A. (2022). Creativity in translation: Machine translation as a constraint for literary texts. *Translation Spaces*, 11(2), 184-212.
- Kolb, W. (2023). ‘I Am a bit surprised’: Literary translation and post-editing

- processes compared. In A. Rothwell, A. Way & R. Youdale (Eds.), *Computer-assisted literary translation* (pp. 53-68). Routledge.
- López A. M. R., & Caro, M. R. (2016). Can emotion stir translation skill? Defining the impact of positive and negative emotions on translation performance. In R. Munoz (Ed.), *Reembedding translation process research* (pp. 107-130). John Benjamins Publishing.
- Macken, L., Vanroy, B., Desmet, L., & Tezcan, A. (2022). Literary translation as a three-stage process: machine translation, post-editing and revision. Proceedings of the 23rd Annual Conference of the European Association for Machine Translation. <https://biblio.ugent.be/publication/8755300>
- Nord, C. (1995). Text-function in translation: Titles and headings as a case in point. *Target*, 7(2), 261-284.
- Ojanpera, T., & Vuori, T. O. (2021). *Platform strategy: Transform your business with AI, platforms and human intelligence*. Kogan Page.
- Peggy, L., & Shim, B. C. (2022). Producing Korean literature(KLit) for export. *Journal of Chinese Sociology*, 9(10), 1-25.
- Rothwell, A., Way, A., & Youdale, R. (Eds.). (2023). *Computer-assisted literary translation*. Routledge.
- Rudan, S. M., Kelbert, E., Kovacevic, L., Reynolds, M., & Rudan, S. (2023). Augmenting and informing the translation process through workflow-enabled CALT tools. In A. Rothwell, A. Way & R. Youdale (Eds.), *Computer-assisted literary translation* (pp. 258-281). Routledge.
- Shin, J. B. (2020, May 31). Forget K-pop, K-literature is making waves, Korea JoongAng Daily. <https://koreajoongangdaily.joins.com/2020/05/31/books/korean-literature-%ED%95%9C%EA%B5%AD%EB%AC%B8%ED%95%99-%EC%86%8C%EC%84%A4/20200531183000304.html>
- Way, A., Rothwell, A., & Youdale, R. (2023). Why more Literary Translators should embrace Translation Technology. *Revista Tradumatica*, 21, 87-102.

부록

Prompt: What is the story of *Your Republic is Calling You* by Kim Young-ha?

“Your Republic is Calling You” by Kim Young-ha is a suspenseful and thought-provoking novel that explores themes of identity, loyalty, and the psychological complexities of living a double life. Here's a summary of the story:

Plot Summary:

The novel centers around Ki-yong, a North Korean spy who has been living in South Korea for over two decades. During this time, Ki-yong has built a new life for himself as a successful importer of foreign films, blending seamlessly into South Korean society. He is married to Ma-ri, a professional working woman, and they have a teenage daughter, Hyon-mi.

The story begins with Ki-yong receiving a cryptic message from the North Korean government, the first communication he has received from them in ten years. The message is a stark command: “Come home.” This directive throws Ki-yong's life into turmoil. He is given 24 hours to abandon his life in South Korea and return to the North, but he is left with no clear instructions or understanding of why he has been suddenly called back.

Character Dynamics:

Ki-yong: As a protagonist, Ki-yong is caught in a web of conflicting emotions. He has been loyal to North Korea for most of his life, but his prolonged stay in the South has also instilled in him a sense of attachment to his new life and identity. The novel delves into his inner conflict, exploring themes of identity and belonging. Ki-yong's character represents the dichotomy of the two Koreas, each claiming a part of his allegiance.

Ma-ri: Ki-yong's wife, Ma-ri, is a strong, independent woman who is unaware of her husband's true identity as a North Korean spy. Their marriage is depicted as strained and distant, filled with unspoken tensions and secrets. Ma-ri is portrayed as someone who yearns for something more in life, a sentiment that mirrors Ki-yong's own struggles.

Hyon-mi: Their teenage daughter, Hyon-mi, is a rebellious, strong-willed young woman. She is largely oblivious to her father's secret life and is more concerned with her own coming-of-age issues, representing the new generation that is disconnected from the old ideological battles.

Themes:

Identity and Alienation: The novel deeply explores the concept of identity, particularly the dual identities that Ki-yong is forced to balance. His struggle with being neither fully North Korean nor South Korean reflects broader themes of alienation and the search for self in a divided nation.

Loyalty and Betrayal: Ki-yong's dilemma over whether to remain loyal to his North

Korean handlers or to the new life he has built in South Korea is a central theme. His uncertainty about where his true loyalties lie symbolizes the internal conflict many defectors or expatriates might feel.

Political and Cultural Division: The story is set against the backdrop of the divided Korean Peninsula, reflecting the deep-seated tensions and differing ideologies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It provides a unique perspective on the cultural, social, and psychological impact of this division on individuals.

The Nature of Espionage: The novel also serves as a critique of the spy life, portraying espionage not as a glamorous occupation but as one filled with paranoia, deception, and moral ambiguity. Ki-yong's life as a spy has led him to question his own morality and the true purpose of his mission.

Conclusion:

As the 24-hour deadline approaches, Ki-yong is forced to make a choice that will determine his future. The tension builds as he grapples with his decision, reflecting on his past and the life he might lose if he returns to the North. The novel's ending is open-ended, leaving readers to ponder Ki-yong's ultimate decision and the implications of his choice, both for himself and his family.

Overall, “Your Republic is Calling You” is a gripping exploration of the complexities of identity, loyalty, and the personal costs of living a life dictated by political agendas.

AI vs. Human Translation: A comparative study on the creative adaptation of Korean novel titles

Seung-hye Mah (shm213@gmail.com)

Department of English Linguistics, Interpretation and Translation, Dongguk University
(Seoul)

Abstract

In response to the growing trend of creatively adapting Korean novel titles, this study evaluates ChatGPT's ability to rewrite titles in a creative manner, rather than resorting to literal translation. The AI was tasked with analyzing the plots and themes of four Korean novels and generating English titles that captured both their central themes and original intent. A comparative analysis was then conducted between these AI-generated titles and those produced by professional literary translators, focusing on functional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The findings revealed that the human translators incorporated a broader range of functions in their adaptations, while ChatGPT produced titles with a more limited functional scope. Despite its limitations in producing nuanced titles, ChatGPT can nonetheless serve as a cognitive tool to assist human translators in crafting more innovative and functionally appropriate titles.

Keywords: Title translation; functions of translated titles; creative intervention; title rewriting; AI literary translation

키워드: 제목 번역, 번역 제목 기능, 창의적 개입, 제목 다시쓰기, AI 문학 번역

마승혜(<https://orcid.org/0000-0003-2098-1777>)

동국대학교 영어영문학부 조교수

shm213@gmail.com

논문 투고: 2024년 8월 12일

1차 심사 완료일: 2024년 8월 30일

2차 심사 완료일: 2024년 9월 9일

게재 확정일: 2024년 9월 14일